

유 가 전 망

..... 2002년 원유가격 전망

이 문 배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분석실장〉

미국에 대한 항공기테러 사건 발생 8주 째를 맞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테러전 공습이 한달 째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국제유가는 직간접적인 수요쇼크의 영향으로 9.11 테러사건 발생 직전보다 오히려 배럴당 4 ~ 5 달러 이상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세계적 경기 침체는 미국경제를 축으로 연초부터 진행되어 왔고 테러 사태와 연이은 보복 전쟁, 그리고 추가테러 위협 등으로 불황은 당분간 계속 확산될 조짐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이전에 예상되었던 시기보다 훨씬 늦추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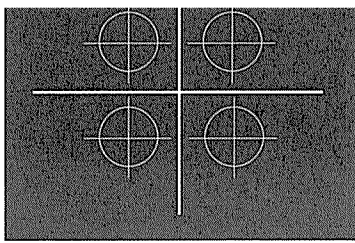
한편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감산전략이 수요쇼크의 영향으로 빛을 잃어 가는 가운데 향후 전개될 대테러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가격동력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원유시장 최근 동향

2002년도 유가전망에 앞서 미국 항공테러 사태 이후 최근까지 석유시장의 흐름을 우선 점검해 보기로 하자. 세계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석유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원유가격은 테러사건 발생 직후 급등세를 보였으나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국제유가는 곧 급락세로 돌변하였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9월 10일 \$27.63/bbl을 기록했던 뉴욕상품거래소(Nymex)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 최근월물 가격은, 뉴욕상품거래소가 다시 개장(9월17일)한 이

후, 9월 24일의 거래에서 \$22.01/bbl를 기록하여 불과 일주일만에 20% 이상 폭락하였고 약세 상황은 10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 결과 두바이 원유가격은 1999년 10월 이후 2년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20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원유와 함께 제품시장에서도 가격폭락의 파장을 몰아 왔다.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개시된 이후에도 유가는 여전히 약세 상황에 머물고 있다.

최근 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약세 상황은 항공테러사건 이후 보여주었던 OPEC이 좁은 선택 입지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중동 산유국으로 구성된



유 가 전 망

OPEC은 사건 직후 시장에서 유가 급등 사태가 전개되자 즉각 증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였으나 연이은 유가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유가방어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못하고 있다. 제 117차 총회에서도 산유량 변동결정을 유보한 채 11월 14일 임시총회로 미루었으며, “유가밴드제도”가 아직 유효하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50만 b/d 자동감산의 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즉 10월 5일 이후 OPEC 바스켓 가격이 연속 10일 이상 22달러 이하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아직도 감산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는 석유수출국기구가 세계경제 침체로 한 석유소비 둔화를 현실로 받아들여 유가약세를 용인할 것이라는 설과 대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산결정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설이 있었지만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의 장기전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을 지지하는 회교도 세력의 반발, 이라크의 제한적 원

유수출 허용기간 연장에 대한 유엔의 승인과정 등 연말까지도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가지 불확실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2. 시나리오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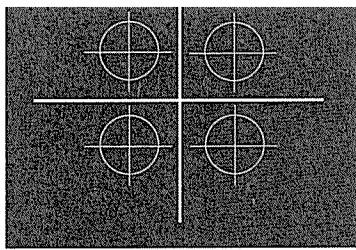
석유시장에 대한 앞서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도 유가전망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세계경기 회복의 가능성과 대테러 전쟁의 전개 양상이다. 테러사태 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세계경제 침체 상황은 수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테러와 보복전쟁의 영향으로 더욱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세계경제가 언제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으로 시작된 대테러 전쟁은 향후 전개될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는 공급측면에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원유가격을 전망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구분		두바이 유가(\$/bbl)	
		상반기	하반기
I	탈레반 정권 붕괴, 국지전 지속, 2002년 상반기 이후 경기 회복	\$18-\$20	\$21-\$23
II	장기전으로 전개, 타지역 확산, 2002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	\$23-\$25	\$20-\$22
III	회교권과 대립 상황으로 전개, 세계경제 불황 지속	\$30-\$35	\$30-\$35

제 I 안 시나리오대로 미국의 아프칸에 대한 공격이 전개되고, 세계경제 회복이 2002년 2/4분기 정도에 가시화 될 경우 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카니스탄이 비

산유국이라는 점과 아프칸에 대체정권 수립을 통하여 이번 전쟁에 대한 아랍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안 시나리오 하에서 2002년 원유가격은 주로 시장의 수급상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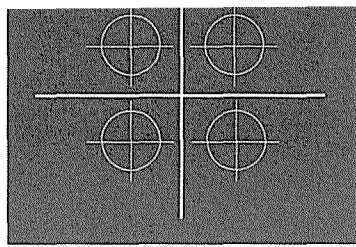
유 가 전 망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조절을 통한 유가 방어능력도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석유소비 위축에 따른 유가 하락 시기에 시행되었던 OPEC의 감산전략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석유수출국기구의 추가감산을 통한 유가방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총 목표산유량(이라크 제외)은 하루 2,320만 배럴로 잉여 생산 능력이 하루 약 400~450만 배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유하고 있다. 유가하락 시기에는 특히 비OPEC과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석유수출국기구와 비OPEC 수출국 사이에 공조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제 I 안의 시나리오 하에서 유가는 상반기에 약세를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2002년 상반기 유가는 \$16~\$17/bbl을 저점으로 평균 19.00 달러 수준, 하반기에는 \$23~\$24/bbl를 고점으로 평균 22.00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가격은 \$19 ~ \$20/bbl로 전망된다.

제 II 안 시나리오에서는 2001년 연말, 그리고 2002년 상반기까지 대테러 전쟁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면서 전쟁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석유시장에 상존 한다는 가정이다. 특히 미국의 대테러 보복 전쟁이 우려하던 대로 이라크 등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회교권과의 전면 대립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이라크 원유의 상당기간 동안 수출 중단 등으로 석유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인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OPEC은 원유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증산 혹은 감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II 안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는 2002년도 4/4분기 이후에나 가능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세계 석유수요도 상반기까지 2001년도 수준 또는 그 이하 수준에 그치게 되겠지만 원유가격은 전쟁의 영향 때문에 상반기까지 배럴당 2~3달러 정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지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전쟁 상황으로부터 점차 벗어나면서 석유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와는 달리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져서 원유가격은 오히려 상반기보다 약세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두바이 원유를 기준으로 2002년 상반기에는 평균 \$23~\$25/bbl 수준, 하반기에는 평균 \$20~\$22/bbl 수준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가격은 \$22~\$24/bbl로 전망된다.

제 III 안 시나리오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 경우이다. 즉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쟁에 대한 회교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태 악화로 이어져 이르면 2001년 연말이나 또는 2002년 상반기에 미국 등 서방국가와 회교권과의 전면대립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태 진전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2002년도 연말까지도 회복기미 없이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역사적인 사례를 1973년 하반기에 발생한 1차 오일쇼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을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정책으로 무위로 돌아가게 되자 중동산유국들이 미국과 친이스라엘계 국가에 대한 석유금수를 선언함으로써 1차 석유파동을 유발시키게 된 것이었다. 지금은 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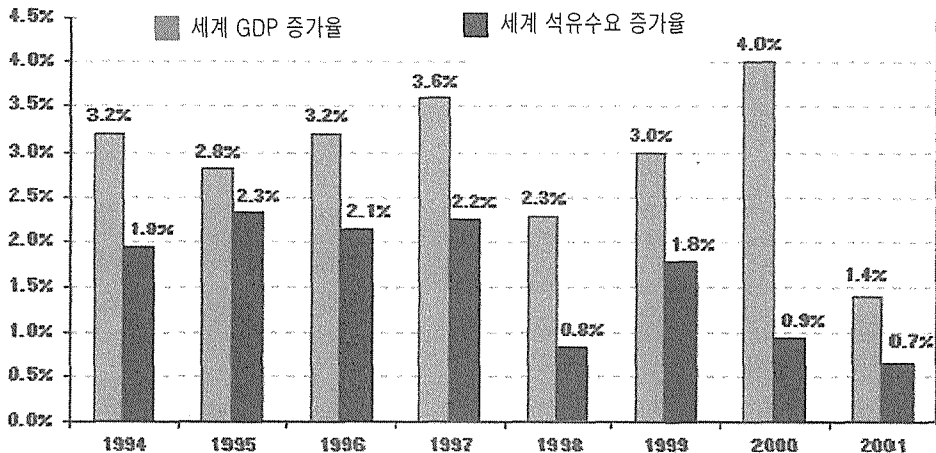
유 가 전 망

전체제의 붕괴와 경제여건 변화 등 당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아랍권의 불만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따라서 아랍권이 만약 미국에 대항하여 석유를 경제적 무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파장은 상당기간동안 전세계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현재로서 제3안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가설이다. 이 경우에 두바이 원유가격은 2001년 연말까지 사태 진전에 따라서 \$30/bbl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상반기에는 평균 \$35/bbl 수준에 달할 것이고 하반기에도 \$30/bbl가 넘는 고유가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외로 유지되던 세계 석유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2000년에는 예상외의 4%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율은 1% 미만에 그쳤으며 올해는 증가율이 더욱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0월호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2002년 세계석유수요를 2001년 보다 약 0.8%, 60만bbl 늘어난 7,660만b/d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수요 전망도 최근의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테러사태와 전쟁, 불경기 여파가 내년에도 석유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IMF는 9월에 발표한 내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전망하였으나 미국 항공테러 사건 이후 세계주요 경제기관들이 2002년 세계성장률을 1.2%~1.5% 수준으로 낮추어 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연평균 석유수요 증가분은 약 3%(30만 b/d)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3. 2002년 석유수요 증가율 0.3% 내외 전망

2002년도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라면 연평균 \$20~\$23/bbl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0년대 중반까지 평균 약 2% 내



자료 : 미국 에너지 정보국